

中國古代의 陰陽論과 陰陽合德

崔 東 熙 *

目 次

- | | |
|--------------------|--------------------|
| I. 중국 고대의 음양사상의 탄생 | III. 중국 고대의 음양오행설 |
| II. 중국 고대의 氣사상 | IV. 계사전의 음양론과 음양합덕 |

I. 중국 고대의 음양사상의 탄생

주(周)나라는 은(殷)나라를 무력으로 무너트리고 (기원전 1040년 쯤에) 기원전 1100 쯤에 새로운 왕조를 세웠다. 그 뒤 주는 한편으로는 주 나름의 정치 기술인 「봉건제도」(封建制度)를 세워서 지배체제를 굳혀 나갔다. 한편으로는 그 통치의 힘을 바탕으로 은문화(殷文化)를 이어받아 중국 나름의 고대문화(古代文化)를 눈부시게 발전시켰다.

그 정치 기술이 씨족제(氏族制)를 바탕으로 하는 원시적인 봉건제도이고 그 문화는 예악문화(禮樂文化)다. 그런데 봉건제도와 예악문화를 함께 떠받치고 있는 밑 바탕이 바로 「천명신앙」(天命信仰)이었다. 이와 같이 독자적인 정치기술과 문화의 나래를 펴고 눈부신 발전을 하던 주나라도 역사의 운명에 따라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를테면 하북평원 서쪽(渭水의 下流)에 있는 호경(鎬京)에서 중국을 300년 동안 지배하던 주나라가 북쪽 유목민족

* 강원대 철학과 교수 철학박사

(犬成)의 침략을 받아 옛 서울을 버리고 그 동쪽에 있는 낙읍(落邑, 河南省 落水 연안)으로 서울을 옮길 수 밖에 없었다. 국내 사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기원전 771년 쯤의 일인데 이 이전을 서주(西周, 기원전 1100~기원전 771)라 하고 이 이후를 동주(東周)라고 한다. 동주는 다시 「춘추」(春秋, 기원전 771~기원전 403)와 「전국」(戰國, 기원전 403~기원전 221)으로 나누워진다. 춘추시대는 제후(諸侯)들의 거의 독립한 상태에서 서로 싸웠고 주의 왕건은 강대한 제후(곧 覇者)에 의하여 그 명맥을 이어갔을 뿐이다. 전국시대는 강대한 제후를(戰國七雄)이 서로 싸우는 소용돌이 속에서 주나라는 이미 낙양(落陽)부근을 차지하는 작은 제후의 처지를 벗어날 수 없었다.

마침내 진(秦)이 기원전 256년에 무력으로 주나라를 쳐서 무너트리고 말았다. 이리하여 주나라는 서주(西周), 춘추(春秋), 전국(戰國)에 걸친 850년의 역사 자취만 남기고 아주 사라져 버렸다. 주나라 평왕(平王)이 서쪽 서울을 버리고 동쪽으로 서울을 옮김으로서 서주시대가 끝장나게 된 역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2가지 요인이 지적된다. 그 하나가 주의 왕조를 떠 받치고 있던 씨족적인 봉건체제(封建體制)가 무너져 가는 사회변동이고 다른 하나가 중원(中原)을 둘러싸고 있는 이민족(異民族)의 움직임이다. 이민족의 영향은 춘추시대도 전국시대에도 역사동향을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적인 요인이다. 이에 대하여 주의 봉건체제가 무너져 간다는 것은 씨족제 또는 종법제(宗法制)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새로운 사회체제(社會體制)가 나타난다는 것을 뜻한다. 춘추시대는 강대한 제후인 패자(覇者, 최초의 패자는 濟의 桓公)가 주의 왕실을 대신하여 실권을 부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 패자의 권력은 종족제를 바탕으로 하는 봉건체제와는 관계가 없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새로운 발전에만 의존하게 되어 갔다. 이와 같이 춘추시대의 권력은 서주의 권력과는 달리 경제의 새로운 발전을 바탕으로 한 군사적·정치적인 현실상의 실력에 의존하였다.

이러한 현실적인 실력에 의하여 지배하는 경향은 철기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더욱 촉진되었다. 철기의 일반적인 사용은 춘추의 말기쯤부터인데 이러

한 기술의 반전으로 보다 넓은 땅을 경작하게 되고 농업생산이 크게 늘어났고 농지의 개간도 더욱 확대되었다. 이리하여 전국시대에는 강대한 제후들이 약소 제후들을 무력으로 통합하여 저마다의 영역을 바탕으로 한 국가를 형성하고 강화하여 나갔다. 이들 강대한 국가가 이른바 「전국의 7웅」(戰國七雄)이다. 그러나 저 서주의 봉건체제가 무너져 마지막 달는 지점은 여기도 아니다. 마침내 기원전 221년에는 중국 최초의 중앙집권적인 통일제국(統一帝國)이 진시황(秦始皇)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중국 고대 역사는 주나라를 통해 서주의 씨족적인 봉건제도가 무너져가는 긴 사회변동을 거쳐 중앙집권적인 통일제국이 나타나게 되는 900년은 긴 역사다. 이렇게 역사시대에서의 중국고대사(先秦時代史)는 바로 주나라 역사인 셈이다. 여기서서 서주의 봉건제도가 무너져가는 긴 사회변동이 전제하는 혹은 사회변동에 따르는 사상운동(思想運動)을 문제 삼으려고 한다. 저 은주 혁명(殷周革命)이라는 중국 고대사의 크나큰 전환점으로부터 비롯된 주 나름의 봉건제도는 그 자체를 유지하고 통제하기 위한 엄격한 실천 규정들을 전제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예(禮)라고 하는 것인데 그 시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행동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도 처음에는 소박한 종교적인 금기(禁忌, 타부·마나 같은 것)로부터 유래하였지만 서주의 발전된 정치·문화 속에서 그 적용범위가 더욱 넓어졌고 그 규정 내용도 세련되어 왔다. 후세에 전하여진 주의 예는 종교·정치·사회의 은 영역에 걸쳐 인간의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널리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주의 씨족적인 봉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딸려 있다. 이러한 서주의 예는 뒷날 춘추·전국시대에 법률·도덕·종교로 갈라져 새로운 발전을 하게 되었다. 서주에서 발전하여 위력을 떨친 주의 봉건체제는 서주 말기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하여 춘추·전국시대를 통한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게 되었다. 이것은 중앙집권적인 통일제국이라는 새로운 사회체제를 향한 사회발전의 역사과정으로서 정치·경제적인 요인에 의하여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서주에서 발전된 「예문화」(禮文化)가 무너져갔고 이에 따르는 새로운 사상운동이 일어난 과정은 정치적·경제적인 요인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본래 주의 「예」는 정신문화로서 절대적인 위력(威力)인 천(天)에 대한 신앙과 사상을 전제하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천에대한 사상을 일단 천에 대한 신앙과 구별하여 주의 「천명사상」(天命思想)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이 천명사상이 주의 예문화에 그 이론적인 근거로서 전제되어 있다. 원래 예의 체계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천(天)에 제사를 드리는 의식(祭天儀式)이다. 여기에는 주나라 사람들의 「천에 대한 신앙」이 전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예(儀式)는 임금(王) 곧 주의 최고 지배자만이 맡게 되었다. 여기에 주의 천명사상의 본질이 잘 나타나 있다.

이것은 바로 상제(上帝)가 도와주지 않고 이와같은 대상(大喪, 큰 파멸)을 내리셨다. 이렇게 천이 도와주지 않는 것은 그의 덕(德)을 힘쓰지 않기 때문이다. (「書經」, 周書, 多士)

대상(大喪)은 나라가 망하고 임금이 살해되는 큰 파멸을 뜻하는데 내용상으로는 은나라의 패망을 가리킨다. 은나라가 패망한 것은 바로 천(上帝)의 뜻 곧 천명(天命)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패망하도록 벌을 내린 것은 정치에 힘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같이 서주의 천명사상은 주로 천의 뜻과 왕의 권력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었다. 곧 주나라가 천하를 지배하게 된 것은 천명이고 주나라 왕권은 천명을 실현하는 신성(神聖)한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주나라 초기의 천명사상은 천에 대한 신앙을 왕권의 정당화 쪽으로 해석하였다는 한계를 지녔다. 서주의 천명사상이 품고 있는 이러한 한계 때문에 서주말기에 서주 왕권이 흔들리게 되자 그 천명사상도 이어 크게 흔들리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서주의 예문화도 급속도로 무너져 갔다. “괴롭히고 위협하는 상제(上帝)는 그 명령에 치우침이 많다.” (詩經, 大雅, 蕩篇) 이렇게 서주말기의 시인은 상제 명령 곧 천명에 치우침이 많다고 하소연하지 않는다. 정말 천(上帝)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천을 향해 안타까이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천명을 실현한다는 주나라 어떤 임금의 잔인함을 천을 향하여 안타까이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서주의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심장속에 품고 있던 천(또는 상제)에 대한 신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천신앙(天信仰)은 은주혁명 이전부터 뒷날까지 중국역사를 통해 쪽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이러한 천신앙을 서주의 사회현실 속에서 이룰테면 새로운 국가건설의 격동속에서 해석하고 강조한 천사상(天思想)을 구별할 수 있다. 이것은 그 해석의 주체가 지배층에 속해 있었다는 사정 때문에 통치이론에 기울어져 있었다. 이러한 천사상이 이른바 「천명사상」인 데 이것이 서주 말기에 결정적으로 흔들리게 되었다. 이것은 절대적인 천의 뜻과 주나라 왕건의 의도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널리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왕의 천에 대한 제례(祭禮)를 비롯한 모든 의례(儀禮)와 행사가 형식적이고 정말 신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국 사람들이 더욱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서주 말기부터 정치가 어지러워졌고 천재(天災)가 자주 일어난 특수사정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춘추시대 이후에는 결정적인 사회체제의 변화가 더욱 작용하여 합리적인 사상운동이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하여 갔다.

자산(子產)은 이렇게 말하였다. 「천도(天道)는 멀고 인도(人道)는 가깝다. 무엇으로써 알아맞힐 수 있을까? (『春秋左氏傳』, 昭公八十年, 春)

자산은 공자보다 좀 앞선 기원전 6세기 중기의 사람이다. 나라에 큰 화재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에 대하여 아무도 미래의 일을 알 수 없다고 잘라 말한 것이다. 그것은 천도는 멀고 인도는 가깝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산은 서주의 예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화재를 막기 위한 전통적인 예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위 같은 책, 같은 해, 七月)

그러나 미신적인 판단과 노력에만 의존하였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천도」(天道)는 천의 뜻(天意) 또는 대자연의 움직임 같은 인간의 앎을 초월한 영역을 가리킨다. 이에 대하여 「인도」(人道)는 인간의 지식과 행동이 미치는 합리적인 영역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초자연적인 천도와 자연적인 인도를 뚜렷이 구분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활동 범위를 넓힐 뿐만 아

나라 참된 신앙의 영역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합리적인 인물이 공자 이전의 춘추시대에 가끔 나타났다. 위에서 말한 자산 이전에도 “대저 백성(民)은 신의 주인이다.”(夫民神之主也)라고 거침없이 말한 계량(季梁) 같은 사람도 있었다. 백성은 신을 대접하는 주인이므로 신을 위해서도 백성을 먼저 잘 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책, 桓公六年, 春)

이러한 합리적인 사상의 선구자들의 뒤를 이어 중국에서는 최초로 공자(孔子, 기원전 552 ~ 기원전 479)가 통치계층을 벗어난 사적인 학파를 세우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유가(儒家)인 데 이 뒤를 이어 묵가(墨家)·도가(道家)·법가(法家)·음양가(陰陽家) 등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들이 이른바 제자백가(諸子百家)인 데 이들의 등장으로 합리적인 사상운동도 그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졌다. 그들은 지배층에도 그렇다고 지배만 받는 계층에도 속하지 않은 중간계층 곧 사계층(士階層)에 속해 있어서 사상을 위한 사상운동을 자유롭게 펴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저 서두의 천명사상과 예문화와 관련시켜 본다면 그것은 인간의 주체적인 자각 쪽으로 깊이 해석하여 발전적으로 이어받는 방향(곧 儒家)도 있고, 그것을 비판하고 극복하면서 새롭게 법률·도덕·종교를 반전시켜 나아가는 방향(곧 墨家, 道家, 法家 등)도 있다. 그런데 음양가도 이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다른 학파와는 색다른 요소를 품고 있어서 특히 주목된다. 우리는 먼저 니담(J.Needham)의 말을 들어보기로 한다.

이제 우주 속에 있는 두 힘(陰과 陽)과 다섯 원소(五行)에 관한 기본이론의 기원과 의미를 설명할 기회가 있다. 엄밀히 말한다면 음양이론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론상으로는 음과 양은 사실상 자연 속의 보다 깊은 차원에 있고, 또 사실상 고대 중국인이 생각할 수 있었던 가장 깊은 두 원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침 우리는 오행설의 역사적인 기원을 음과 양의 역사적인 기원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오행설을 먼저 다루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다. 오행설을 다루기 위하여 추연(鄒衍 기원전 350- 기원전 270)이라는 사상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사상가는 중국의 모든 과학사상의 참된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데도 우리는 아직 그에 대하여 충분히 말할 기회를 얻지 못 하였다.¹⁾

1) Joseph Needham, Science and Civilisation in China, volume II, History of Scientific

니담은 여기서 음양에 대하여 세 가지 표현을 쓰고 있다. 첫째로 음과 양은 우주 속에 있는 「두 힘」(The Two Forces)이라고 한다. 둘째로 음과 양은 자연 속의 보다 깊은 차원에 있다고 한다. 셋째로 음과 양은 고대 중국 사람이 생각할수 있었던 가장 깊은 원리(the most ultimate principles)라고 한다. 이 대목은 좀 더 정확하게 「가장 깊은 두 원리」라고 옮겨야한다. 이상의 세 가지를 종합하면 니담이 음양에 대하여 말한 내용이 좀더 뚜렷하게 된다. 이를테면 중국 고대 사람이 마침내 알아낸 「자연 속에 있는 가장 깊은 두 원리」가 바로 「음양」이다.

우리는 더 나아가 음양과 오행의 관계도 이끌어낼 수 있다. 여기서 니담은 음양을 자연 속의 보다 깊은 차원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 오행을 “다섯 원소”(the Five Elements)라고 하면서 이 오행보다 「더 깊은 차원에」 있는 것이 음양이라고 한다. 이것은 오행이 음양을 반드시 전제 한다는 것을 뜻한다. 사실상 음양과 오행이 하나로 묶여 「음양오행설」이라는 하나의 체계가 발전되어 갔다. 그러나 이 사상체계가 완결되기 위하여 「자연 속의 가장 깊은 차원에」 있는 것을 전제한다

이미 맹자(孟子)가 천지 사이에 가득 차 있는 “호연의 기”(浩然之氣), 「孟子」, 公孫丑上을 말하였다. 장자(莊子)는 음양을 자주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천지의 일기”(天地之一氣. 「莊子」, 內編 大宗師)도 말하였다.

이와 같이 전국시대에 「자연 속의 가장깊은 차원에 있는 것을 「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여기서서는 음과 양을 음기(陰氣)와 양기(陽氣)라고 보고 이 이기(二氣)보다 깊은 「가장 깊은 차원에」 있는 것으로서 「일기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기사상」(氣思想)인데 이것은 일찍부터 음양오행설과 결합하여 하나의 사상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사상체계를 역전(易傳)에서 특히 계사전(繫辭傳)에서 확힌하여 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기사상·음양오행설이 하나로 통합하여 하나의 사상체계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II. 중국고대의 氣사상

중국 고대사상에 있어서도 자연과 인간을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것을 여기서는 실천철학적인 사상에 대하여 자연철학적(自然哲學的)인 사상이라 부르기로 한다.

앞것보다 뒷것이 좀 약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그 나름으로 꾸준히 이어져 갔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중국사람 나름의 자연철학적인 사고방식이 전국시대부터 「기사상」(氣思想)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기」(氣)라는 생각은 중국의 기나 긴 전통사고 속에 있어 왔다. 갑골문(甲骨文)에는 「기」라는 글자가 아직 없으나 「바람」(風)·「흙」(土)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고 이들은 제사를 받는 신이었다. 바람은 비를 내리게 하여 자연계의 못 현상들에 작용하는, 흙은 만물을 돌아나게 하는 힘을 가졌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뒷날 이러한 바람이 「하늘의 기운」(天氣)으로 발전하고 이러한 흙이 「땅의 기운」(地氣)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²⁾ 춘추 말기쯤의 유가(儒家) 쪽 사상을 나타낸 『논어』에 “젊을 때에는 혈기(血氣)가 안정되어 있지 않다.” (『論語』, 季氏)라는 구절이 보인다. 사람이 젊을 때 혈기가 안정되지 못하고 한창일 때 혈기가 바야흐로 왕성하고 늙어지면 이미 혈기가 쇠약하여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혈기는 인간의 모든 체력의 기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원래 공자를 받드는 유가에서는 인(仁)이나 예(禮) 같은 것이 강조되고 그 밖의 것은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논어』에 혈기 같은 말이 나타난 것은 이 당시에 「기」라는 관념이 일반적으로 통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에 대하여 전국 중기의 사상을 나타낸 『맹자』에는 「기」가 사상적으로 좀 더 중요한 개념으로서 좀 더 자주 나타난다. “의지는 기를 통솔하는 것이다. 기는 몸에 가득 차있는 것이다.”(『孟子』, 公孫丑上) 이와 같이 맹자는 기를 “몸에 가득 차있는 것(體之充)”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를 통솔하는 것이 의지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는 역시 육체의 기본

2) 小野澤精一, 外二人編, 『氣의 思想』, 1978, p. 28

적인 힘이고 따라서 정신의 도덕적인 주체인 의지 밑에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 기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크고 지극히 강하고 또 곧아서 기르고 해치지 않으면 천지 사이에 가득 차게 된다.”(『孟子』, 같은 곳) 여기서 기라고 하는 것은 “호연의 기”(浩然之氣)인 데 이것은 이렇게 크고 강하고 곧은 기라고 강조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잘 기르면 천지사이에 가득 찬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호연의 기도 「의」(義)가 없으면 굼어서 시들어진다고 한다. 이렇게 맹자는 인간의 육체에 가득 차있는 기와 천지사이에 가득 차있는 기(호연의 기)를 체계적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끝내 「의지」(志)와 「의」(義)를 기보다 더 중요하게 봄으로써 유가로서의 독자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맹자』보다 좀 뒤에 나타난 문헌인 『장자』(莊子)에는 더욱 체계적인 「기사상」이 엿보인다. 이것은 시대의 차이 때문이 아니고 도가(道家)라는 학파의 차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학파의 차이에 따라 다소 그 내용을 달리하지만 모든 학파에서 기사상을 도입하게 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장자』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사람이 산다는 것(生)은 기가 모이는 것(氣之聚)이다. 기가 모이면 태어나게 되고 기가 흩어지면 죽게 된다. 곧 죽음과 삶은 따라다니는 것이므로 우리는 또 무엇을 걱정하라. 그러므로 하나다.(『장자』, 知北遊)

여기서는 하나의 기가 모여 뭉치면 사물이 생겨나고 흩어지면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은 하나다.”(萬物一也)라고 분명히 말한다. 위 인용문을 끝마치면서 “천하를 통하는 것은 일기일 뿐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성인은 하나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다시 강조하였다. 천하의 만물을 꿰뚫고 있는 것은 바로 “일기(一氣)이기 때문에 성인은 이 「일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장자』에는 하나의 기가 「모이고 흩어짐」(聚散)에 따라 만물이 생성하고 소멸한다는 일원론적인 기사상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장자』가 도가 쪽 문헌이기 때문이라고만 할 수도 없다. 시간적으로 좀 뒤에 나타난 유가 쪽 문헌인 『순자』(荀子)에도 거의 같은 사상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물과 불(水火)에는 기가 있고 생명(生命)이 없다. 풀과 나무(草木)에는 생명이 있고 지각(知)은 없다. 새와 짐승(禽獸)에는 지각이 있고 의리(義)는 없다. 사람에게는 기가 있고 생명이 있고 지각이 있고 또 의리가 있다. 그러므로 천하에서 가장 귀하다.(「管子」, 王制)

여기서는 사물들을 무생물·식물·동물·인간으로 분류하고 그 분류의 기준으로서 단계적인 네 가지 가치(價値)를 분류하고 있다. 곧 기(氣)·생명(生)·지각(知)·의리(義)의 네 단계 가치로 분류한다. 이들은 가치상으로 차례로 높아져 가지만 존재상으로는 오히려 밑 단계가 윗 단계의 기초로 된다. 의리는 지각을 기초로 하고 지각은 생명을, 생명은 기를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결국 모든 단계는 기를 기초로 하고 있다. 이렇게 순자(荀子, 기원전 314~기원전233)는 만물이 하나의 기로부터 차례로 발전하였다는 일원론적인 기사상을 좀 더 과학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순자의 분류는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기원전384~기원전 322)가 자연학(自然學)에서 전제하고 있는 「무생물」(無生物) 식물적인 생명·동물적인 생명·이성적인 영혼의 분류와 서로 통한다. 순자는 더 나아가 인간에 있어서의 기와 자연에 있어서의 기를 구분하고 그 관계를 밝힘으로써 기사상을 좀 더 구체화하였다.

많은 별들은 순서에 따라 돌아가고 해와 달은 번갈아 비치고 사시(四時)는 차례로 갈아들어서 음양은 널리 만물을 생성하고 변화시킨다. 이리하여 바람과 비가 널리 혜택을 주게 된다. 만물은 저마다 이 음양의 조화를 얻어 태어나고 저마다 음양의 양육(養)을 얻어 성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음양」은 음기와 양기를 말한다. 이 두 기의 조화를 얻어 태어나고 저마다 이 두 기의 양육을 얻어 성장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미 기사상과 음양설이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음양의 이기(二氣)가 바로 자연속에 있는 기다. 그런데 순자는 또 다음 같이 말한다.

“무릇 천지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것들 곧 혈기(血氣) 있는 족속은 반드시 지각이 있다. 지각이 있는 족속은 같은 동류를 사랑하지 않음이 없다.”
(「순자」, 禮論)

여기서 말하는 「血氣」는 동물과 인간에게 가득 차있는 기로서 자연 속에 가득 차있는 음양의 기와는 매우 다른 기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무생물에는 물론이고 식물에도 없는 지각(아는 능력)의 기초가 되는 기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식물의 생명력보다 높은 단계의 생명력인 듯 하다. 이렇게 무기적인 에너지와 생명적인 에너지를 뚜렷이 구분하려고 했다는 것은 그만큼 과학적인 반성이 깊었음을 뜻한다. 혹은 중국 사람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작용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곧 천·지·인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고에 따라 기도 천기·지기·인기(天氣·地氣·人氣)로 나누었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유가에 속하는 순자가 상당히 체계적인 기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유가의 기사상은 이미 음양설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실은 음양설과 결합되었기에 그만큼 체계적일 수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Ⅲ. 중국고대의 음양오행설

중국 고대 사람도 자연계와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현상들을 좀 더 눈여겨 보면서 이것 저것 견주어 보고 좀더 나누어 보고 좀 더 묶어 보려는 움직임이 커져 갔다. 이렇게 온갖 현상을 관찰하여 그 복잡한 현상을 분류하고 종합하려는 고대 중국 사람의 요구가 마침내 몇가지 만물의 요소와 원리 그리고 만물의 근원을 생각해 내게 되었다. 이렇게 중국 사람 나름대로 만물의 원소·원리·근원 등을 따지고 내서우는 사상운동이 바로 기·음양·오행의 사상이다. 여기서서는 물론 그 연구방법이 오늘날 처럼 정확할 수가 없고 소박한 연역법(演繹法)을 쓰는 데 그쳤다. 곧 오늘날 처럼 사물들을 널리 관찰하고 분석하여 그들의 공통성을 찾아내는 방법(歸納法)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우연한 짐작과 추리에 따라 어떤 원소·원리·근원 등을 그나름대로 찾아 내어 서둘러 이것저것에 널리 맞추려는 소박한 연역법(演繹法)을 쓰는 데 그쳤다.

그러므로 음양의 이론이 있으면 그것으로써 하늘과 땅(天地)·낮과 밤(晝夜)·남자와 여자(男女) 등의 자연현상으로부터 높음과 낮음(尊卑)·움직임과 조용함(動靜)·억셈과 부드러움(剛柔) 같은 추상적인 개념까지를 한데 싸잡았다.”(顧頡剛「漢代學術史略」, 中國文化服務社1936, 1쪽)

위에서 기에 대한 사상은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음양과 오행에 대한 사상운동을 살펴보고자한다. 음양에 대한 사상을 흔히 음양(陰陽)설이라 하고 오행에 대한 것을 오행설(五行說)이라고 하는 데 이들은 본래 그 유래와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두 사상의 발생과정은 아직도 잘 모르지만 다소 체계적인 학설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전국시대 이후의 일이다. 「논어」(論語)에는 더 말할것도 없고 「맹자」(孟子)에도 아직 음양에 대한 말이 없다.

그러나 장자(莊子)에는 적지 않게 나타나 있다. 「음양의 기가 어지러워져 있으나 그 마음은 조용하여 무사하다. (『莊子』, 大宗師) 여기서 말하는 음양의 기(陰陽之氣)는 사람의 육체를 구성하고 조절하는 음기(陰氣)와 양기(陽氣)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장자」에 있어서는 이미 기와 음양이 하나의 체계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음과 양이 아울러 치우치면 사철이 제대로 오지 않고 춥고 더움이 순조롭지 못하여 오히려 사람의 육체를 해치지 않을까” (『莊子』, 在宥) 여기서 말하는 음과 양도 음기와 양기라고 볼 수 있지만 자연현상과 인간의 육체를 지배하는 기본적인 힘(에너지)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장자」에 나타난 음양설은 이미 그 때 있었던 음양설을 반영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장자와 거의 같은 시기의 사상가인 추연(鄒衍, 기원전 350-기원전 270)의 사상을 통해 좀더 밝혀질 것이다.

추연의 출생과 사망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사기」(史記)에는 「맹자 순경 열전」(孟子荀卿列傳)이라는 제목 밑에 추연의 전기가 있다. 그것에 따르면 추연은 “그래서 음양의 소식을 깊이 살펴 보았다.”乃深觀陰陽消息“고 한다. 지배층이 서민들을 돌보지 않는 것을 걱정하여 추연은 「음과 양이 꺼져 가고 생겨 나는 움직임」(陰陽消息)을 깊이 연구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추연의 음양설이 전국시대의 정치현실에 적용되는 측면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사기」의 위 전기에 “왕후(王侯)나 대관들이 그의 학설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 겁을 먹고 그에 따랐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

음기(陰氣)가 꺼지고 양기(陽氣)가 생긴다.]³⁾는 음양의 생멸에 관한 주장이 왕권의 성쇠에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또 “하늘과 땅이 갈린 뒤에 죽 오덕(五德)이 변하여 온 움직임이 그때 그때의 정치에 그와 걸맞는 것이 있어서 그 움직임이 정치의 성쇠와 같음을 낱낱이 입증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오덕」이란 오행(五行)의 작용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금(金, 쇠)·목(木, 나무)·수(水, 물)·화(火, 불)·토(土, 흙)를 일상적인 삶의 기본적인 물자라고 하여 오재(五材)라고 불렀다. “천이 오재를 내고 백성은 이들을 모두 신다.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春秋左氏傳』襄公二十七年) 여기서 말하는 「오재」가 바로 백성이 쓰는 기본물자로서의 금·목·수·화·토(五材)다. 이러한 오재가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하다는 쪽으로 옮겨져서 다섯 가지 만물의 요소 또는 다섯 가지 기(氣)의 작용을 뜻하는 오행으로 발전하였다. 물론 추연의 오행은 오덕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이미 만물의 원소 또는 기본작용이다. 서복관(徐復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덕은 금·목·수·화·토의 오기(五氣)에서 발생하는 다섯 가지 작용이다.”⁴⁾ 이에 따르면 추연의 오행설은 이미 기의 사상과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음양설과도 결합되어 있다.

추연이 말하는 “오덕의 변하는 움직임(五德轉移)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일까?” 오덕은 저마다 뒤에 오는 것이 앞의 것을 이긴다. 순(舜)의 왕조는 토(土)의 덕으로 다스렸고 하왕조(夏)는 목(木)의 덕으로 다스렸고 은왕조(殷)는 금(金)의 덕으로 다스렸고, 주왕조(周)는 화(火)의 덕으로 다스렸다.⁵⁾ 이것은 추연 또는 그 직접 제자들의 글이라고 하여 전해 오는 글 가운데 한 토막이다. 이 글에 따르면 하나의 왕조는 오덕 가운데 있는 하나의 덕으로 왕권을 얻고 바로 그 덕에 걸맞는 정치체계를 갖추고 통치를 해야한다. 이 덕을 이기는 덕으로써 새 왕조가 등장한다. 이렇게 차례로 이기는 오덕의 순서는 화·수·토·목·금의 순서다.

위 인용문에 따르면 순의 왕조는 토의 덕으로 왕권을 얻었다. 따라서 토

3) 陰陽消息의 消는 음기가 꺼진다는 뜻이고, 息은 양기가 생겨난다는 뜻이다. 校乘, 「七發」; 消息陰陽, 注 善曰 消滅也, 息生也

4) 徐復觀, 「中國人性論史」, 台灣商務印書館, 573쪽

5) 馬國翰, 玉函山房輯佚書, 卷 77, 十六葉以下

의 덕으로 다스렸다. 그의 앞 왕조는 수의 덕으로, 또 앞의 왕조는 화의 덕으로 다스렸다는 것이다. 순의 왕조 뒤에는 하왕조가 목의 덕으로 왕권을 얻어 다스렸고 그 뒤에는 은왕조가 금의 덕으로 다스렸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덕의 변하는 움직임“ 곧 오덕 변화의 법칙이다. 이것이 오행 상극(相剋)설 이다. 앞에서 본 「음양의 꺼지고 생기는 움직임」(陰陽消息)이 자연의 법칙이라면 「오덕의 변하는 움직임」(五德轉移)은 역사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자연의 법칙이 그대로 인간에게도 따라서 사회·역사에도 적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은 오덕 변화의 움직임 속에 음양 생멸의 움직임이 스며들어 있다. 이를테면 수(물)가 화(불)를 이기는 것은 수가 양기(陽氣)의 자리에 있고 화가 음기(陰氣)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토(흙)가 수(물)를 이기는 것도 목(나무)이 토(흙)를 이기는 것도 금(쇠)이 목(나무)을 이기는 것도 화(불)가 금(쇠)을 이기는 것도 모두 양기의 자리에 있어서 음기의 자리에 있는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양기가 음기를 이긴다는 것이 바로 「음양 생멸의 움직임」(陰陽消息)이다. 이것은 추연이 음양과 오행을 하나의 이론체계로 결합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음양·오행을 한데 결합하는 것은 바로 추연으로부터 시작되었다.”⁶⁾ 물론 이 무렵에 오행설이 이미 논의 되어 있었고 따라서 그것과 음양설의 관계도 문제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정신풍토 속에서 추연이 음양과 오행을 교묘하게 결합하여 당시의 정치적인 현실을 예언적으로 진단하였다.

그러나 추연의 학설이 그 당시의 사상계에 관심을 일으키지 못하였다는 점이 다음과 같이 지적되어 있다. “추연의 학설은 일부 통치자의 흥미를 일으켰을 뿐이고, 그 당시 사상계의 흥미는 거의 일으킬 수 없었다.”⁷⁾ 음양설과 오행설이 하나로 결합한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은 한 대(漢代)에 들어가서 비로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6) 위 徐復觀의 책, 572쪽

7) 위와 같은 책, 575쪽

IV. 「계사전」의 음양론과 음양합덕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 고대 사상에 있어서의 기(氣)·음양(陰陽)·오행(五行)에 관한 사상을 살펴보았다. 전국시대 말기까지는 기의 사상과 음양설이 이미 결합하여 하나의 사상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체계적인 음양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이 음양론(陰陽論)이 추연(鄒衍)에 의하여 다시 오행설(五行說)과 결합하여 「체계적인 음양오행론」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이 음양오행론(陰陽五行論)은 어디까지나 시도에 그쳤고 전국시대 말기까지 거의 사상계의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모처럼의 추연의 시도 자체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잊혀지고 말았다. 그러나 겨우 단편적으로 남은 추연의 기발한 시도가 한 대(漢代)에 계승되어 「체계적인 음양오행론」으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거대한 세계적인 통일 국가로 발전하는 한 대의 정치적인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대의 체계적인 음양오행론에 이르는 매우 중요한 중간단계(中間段階)를 다루는 데 그치기로 한다. 그것은 바로 주역(周易)의 「계사전」(繫辭傳)에 나타난 「체계적인 음양론」이다.

우리가 여기서 「계사전」이라고 할 때 사실은 이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문언전」(文言傳)과 「설괘전」(說卦傳)의 첫머리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여기에 나타난 「체계적인 음양론」을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것은 진대(秦代)로부터 한 대(漢代) 초기에 걸쳐 통일 제국(統一帝國)이라는 정치현실의 요청에 따라 유가(儒家)쪽에서 음양설과 도가사상(道家思想)까지도 수용하여 체계화한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사상이다.

둘째로 이 음양론은 한 대이후의 유학(儒學)의 사상적인 기초다. 한 대 유학이 「국가종교」로서 그 위세를 떨칠 수 있는 것은 천인합일적인 음양오행론 때문이었다. 그런데 「계사전」의 「체계적인 음양론」이 오행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저절로 체계적인 음양오행론이 되기 마련이다. 체계적인 음양론은 오행설 없이 자립한다. 그러나 오행설은 음양론 없이 자립할 수는 없다. 이를테면 한 대 이후 유학의 사상적인 기초가 「계사전」에서 확립되

었다. 이렇게 거대한 한제국(漢帝國)의 통치이념으로 발전한 한 대 유학의 사상적인 기초가 바로 주역의 「계사전」에 나타나 있는 데 그것이 바로 「체계적인 음양론」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음양론을 전면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 다만 여기서는 그 천인합일적인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음양합덕」(陰陽合德)의 철학적인 의미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친다.

선생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건곤(乾坤)은 바로 역(易)의 문호(門戶)가 아닐까. 건(乾)은 양기(陽氣)가 나타난 형태고 곤(坤)은 음기(陰氣)가 나타난 형태다. 음양이 덕(德)을 모으므로 비로소 굳센 것(剛)과 부드러운 것(柔)의 형체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써 모든 것이 천지의 수(數)를 형체로 나타낸다. 그러므로써 신명(神明)의 덕과 통하게 된다.

무엇보다 먼저 여기서는 기의 사상과 음양의 사상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여기서는 음과 양은 아무런 형태가 없는 그러나 엄연히 근본 특성을 달리하는 음기와 양기를 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기가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 건(乾), 곧 天이고 음기가 형태를 갖춘 것이 곤(坤), 곧 地이라고 한다. 우주 쪽으로는 순수한 두 가지 기가 형태를 갖춘 것이 하늘과 땅이다. 이를테면 하늘과 땅이 비로소 생겨난 셈이다. 주역(周易) 쪽으로는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건괘(乾卦, 乾 ☰)와 곤괘(坤卦, 坤 ☷)가 마련되었다. 이를테면 모든 괘(八卦와 六十四卦)가 나오는 “역의 문호”(易之門)가 마련된 셈이다. 이리하여 우주 쪽으로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굳센 것」과 「부드러운 것」을 양극으로 하는 삼라만상이 생겨나고 주역 쪽으로는 삼라만상을 상징하는 팔괘, 육십사괘(六十四卦), 삼백팔십사효(三百八十四爻)가 형체를 갖추게 되었다.

이와 같이 천지와 만물이 형성되는 과정의 합리적인 설명과 이것을 상징하는 신기한 기호체계(記號體系)는 그 당시 지식수준에서는 매우 놀라운 것이었다. 그리고 뒷날 우리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게 미친 영향도 매우 컸다. 이것이 바로 「계사전」에서 당시의 유가 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이룩한 「체계적인 음양론」의 전체다.

이 음양론의 근본원리는 바로 음기와 양기가 그 서로 다른 특성을 합쳐

서로 힘을 주고 받는다는 「상호작용」(相互作用) 곧 “음양합덕”(陰陽合德)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원리는 첫째로 그 당시 유가에서 자연현상과 인간현상의 대응과 조화를 강조하여 자연현상을 바탕으로 하는 객관적인 도덕체계를 세우려고 한 새로운 동향을 반영한다. 씨족제도를 바탕으로 한 원시유교가 중앙집권적인 통일제국이 요청하는 객관적·사회적인 도덕체계쪽으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둘째로 당시의 유가는 추연의 「오덕 변화」(五德轉移)의 원리 곧 오덕의 상극설(相剋說)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것은 왕조의 혁명쪽으로 보는 혁명적인 이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음양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여 안정된 사회체제에 적응하려고 하였다. 셋째로 상극설 뿐만 아니라 이미 싹트고 있던 「오행상생설」(五行相生說)도 포용하는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원리를 위한 노력이 잘 나타나 있다.